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높이 오르고 싶은 자, 부디 자신의 발로 그리하라

정의 가면이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상황 속에서 명징하게 자신의 감정, '내 속'을 모르는 것은 인간적인 조건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면 감정이 상황과 조건에 대한 반응이라는 점에서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이다.

가장 파괴적인 힘으로 삶의 생성과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원한 감정이다. 이 감정은 증오심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 원한 감정은 뿌리 깊은 억울함과 원통함이 분노를 앞세우지만 그 안 쪽에는 여러 감정들이 얽혀 있는 정서다. 원한을 주체와 노예의 관점에서 철학적 주제로 다룬 사람이 프리드리히 니체(1844~1900)다. 니체에 따르면 원한 감정의 본질은 복수인데 대부분 선의 가면을 쓰고 등장한다. 그래서 니체는 "저들이 정의롭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듣노라면, 그것은 언제나 나는 양값음을 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라고 말한다.

즉, 원한이 노예가 주장하는 도덕적 가치의 본질 감정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노예는 역사상 있었던 실제 노예나 또는 현실에서 사회적 모순과 구조의 불합리성으로 억압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자신의 삶, 생각과 판단에 있어서 주체나 주인이 되지 못한 나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들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노예는 자기 연민과 무력함으로 굳어진 원한을 정의로, 복수를 도덕의 회복이라고 말하는 원한 감정에 지배당한다. 이들의 깃발은 언제나 과거를 향하며, 같은 무리를 불러 모으는 것으로 승부하려 한다. 그렇기에 미래를 염려하여 계획하고 책임지며

삶의 가치를 확장해 내는 주인의 삶은 없다. 원한은 과거의 유산이지 미래에서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원한은 보편의 가치를 악으로 규정하면서도 정면 승부를 할 수 없을 때 밀려오는 무력감이 겹겹이 굴절된 것이다. 노예는 자신을 부당하게 억압받는 자의 자리에 위치시키면서 원한 감정을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위장하고 한 패가 아니면 누구든 공격한다. 그래서 기득권 유지와 지배 욕망에 포획된 노예의 복수는 언제나 패와 세를 수단으로 하는 전체주의적인 폭력의 행사다.

결국, 노예는 스스로 판단한 자기 명령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으며, 노예의 감정은 자기 존엄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저급한 감정들이다. 정의라는 이름표를 달았지만 사실은 저급하게 뒤틀린 욕망·질투·열등감·증오·분노등의 혼합물인 것이다. 이런 감정들에 지배당하는 한 아무리 주인 옷을 겹으로 입은들 외투 안의 노예근성은 그대로다. 노예의 도덕은 개인의 영역과 공적 영역에서 모두 나타나는데, 특히 공적일 경우의 위험성은 더욱 파괴적이다. 빈 그릇을 요란하게 두들기는 많은 노예들의 유사 정의감과 헛된 공명심을 조심해야 할 시절이다.

이와 달리 주인의 조건은 스스로 가지 있는 명령을 내리고 이에 기꺼이 순명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주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타인의 등과 머리 위에 앉아서 안락하게 가려고 하지 않는다. 주인으로서 자기 명령에 따르는 길을 높이 오르며 미래를 향해서 달리 가려는 자, 그가 누구이든, 공적이든 사적이든, 자신의 발로 그리하라.

社說

자치구 '점심 휴무제' 시민 불편 최소화해야

광주 5개 구청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강행하고 있다. 두 달 간의 제도 기간을 거치고 무인 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했다지만, 시민들은 크게 불편을 겪고 있다.

광주 5개 자치구가 점심시간 휴무제를 강행함에 따라 구청 민원실 공무원들은 시행 첫날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 불을 끄고 일제히 자리를 비웠다. 물론 각 자치단체는 152대의 무인 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공공일자리 참여자를 한시적으로 배치했지만 휴무제 시행 사실을 미처 모르고 찾았던 민원인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복구의 경우 이날 오후 1시까지 열 명이 넘는 민원인들이 찾았는데, 특히 고령자들은 낯선 무인발급기 앞에서 난감해 하다 공공일자리 요원의 도움으로 간신히 민원서류를 떼어 돌아갔다. 특히 무인 발급기로 처리되지 않는 서류가 필요한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

기도 했다. 현재 인감증명이나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세무 관련 증명서는 무인 발급기로 뚝 수 없다.

공무원노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고 규정된 만큼 적절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 공무원의 업무 효율을 높여줬다는 취지로 휴무제를 밀어붙여 왔다. 하지만 모든 자치구가 점심시간 민원 업무 중단을 결정할 곳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광주가 처음이다.

다만 자치구와는 달리 광주시는 점심시간에 민원을 해결하려는 직장인과 무인발급기 이용이 서툰 고령층 등을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공무원들의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시민 편의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와의 조화 속에 이뤄져야 한다. 점심시간에 최소한 한 명의 공무원이라도 교대로 배치하고 그만큼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이 절실하다.

'장모 구속' 윤석열 면밀한 검증 요구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세워 요양급여 22억여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 씨는 이 사건 외에도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앞서 병원 개설과 운영을 주도한 주 모 씨는 2017년 징역 4년이 확정됐고 주 씨 부인 한 모 씨와 의료재단 불법 설립을 공모한 구 모 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하지만 당시 최 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입건조차 되지 않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었다.

이와 관련 현 정권에 대한 수사도 미온적이었던 윤 전 총장의 처가를 대상으로 무리한 수사가 진행돼 왔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의 처가 일가가 '검

사 사유'를 뒷받침으로 범망을 빠져나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돼 왔다. 최 씨 측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지만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도 앞으로 철저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최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됨에 따라 대권 경쟁에 뛰어든 윤 전 총장은 초반부터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윤 전 총장은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짙막한 입장만 밝혔다. 그의 말이 아니더라도 그 누구든 범죄 혐의가 있다면 법적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1심 판결에서 장모 최 씨의 혐의가 인정된 만큼 앞으로 윤 전 총장 처가 일가에 대한 검증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대권 주자와 그 주변에 대한 검증은 사실을 바탕으로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일단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이상 그의 가족과 측근들도 사실상 공인으로서 검증 시합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기고



정용상
무등산 국립공원사무소 소장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무등산국립공원의 역할

100만 톤(tCO2)을 감축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가 집계한 작년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지역은 연간 900만 톤(tCO2)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산업 활동과 에너지 소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발맞춰 무등산국립공원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숲의 탄소 저장 기능을 강화해 도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상쇄하고 탄소 흡수원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한다. 도심에 위치한 무등산은 광주 시민의 휴식처이자 4082종에 달하는 야생 동식물의 보금자리이다.

국립공원사무소는 무등산국립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립공원 맞춤형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공원 지정 당시 74.8% 달했던 사유지의 재산권 보호와 핵심 지역의 보전관리를 위해 그동안 159억 원을 투입해 7.5%의 면적을 국유화했다.

올해는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1㎏의 사유지를 매수하여 유류 토지의 탄소저장 기능 개선과 보호·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무등산국립공원의 광주 지역 내 4163기에 달하는 묘지를 공원 바깥으로 이장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참나무류 등 탄소 흡수력이 높은 자생

식물을 소규모 훼손지에 심어 탄소 저장량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미 훼손이 진행된 독립된 훼손지의 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탄소 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생태 복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평두메 습지는 과거 농지로 활용되면서 훼손된 지역을 토사 준설과 생태 저류지 조성 등을 통해 복원하고 있다. 습지 내 사유지의 추가 매수를 통해 특별보호구역 지정 면적을 확대해 습지 기능을 강화하고, 저지대의 나지화된 유류 토지를 대상으로 자연친화적 공법을 적용한 자연 숲 복원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훼손 지형의 복원과 자생 식물의 자연 천이를 유도해 숲의 탄소 흡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끝으로 사회 전반적인 녹색 전환 분위기에 국립공원의 탐방 환경 또한 변화하고 있어 무등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이 필요하다. 국립공원 방문 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산행 중 발생한 쓰레기는 되가져가기 등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탄소중립은 우리 모두가 함께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다. 일상생활에서부터 실천하는 행동의 전환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기후 위기를 우리 모두의 동참과 노력으로 슬기롭게 헤쳐 나가길 기대해 본다.

기고

ESG경영이 필요하다

물리적(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 학교나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플라스틱 가림막 설치는 공공연히 의무가 되고 있고, 커피숍에서 머그잔 대신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사용이 당연시 되고 있다. 한 플라스틱 제조사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 조만간 플라스틱 재고가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한다.

환경 보호가 중요해진 만큼 재계에는 'ESG 경영'이 화두이다.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이란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기업 활동의 재무적 요소만이 아닌 친환경(E), 사회적 책임(S), 지배구조의 투명성(G) 등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한 경영을 말한다.

산업 전반에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은 새로운 성과 목표로 ESG경영을 지표로 삼고 있다. 올해 기업 경영 계획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친환경'이다.

대표적인 세계적 기업 애플은 2030년까지 공급망과 제품의 100%를 탄소 중립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애플에 제품을 공급해야 하는 기업 역시 이산화탄소(CO2)를 감축하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국내 대기업들도 ESG경영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그룹은 2050년까지 전력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고 했다. 또 LG화학은 '2050 탄소중립 성장 선언'을 통해 2050년 탄소 배출량을 2019년 수준인 1000만톤으로 억제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슬기로운 선택 3GO 줄이고! 아끼고! 잘 버리고!'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ESG경영 추진에 따른 임직원들의 생활 속 실천 운동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업무 서식을 40종에서 21종으로 개선하여 종이 자원을 절약하고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하루 동안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배출된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를 광장에 전시하여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로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 흐름은 환경과 공존하는 안전한 미래 사회를 위한 근본적이고 질 높은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기반이 되어줄 것이다. 이를 토대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 활동으로 사회 공동체 내에 자리를 잡았으면 한다.



김구태
농협경주교육원 교수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누적 접종 건수가 19억 건을 돌파했다고 한다. 백신 접종률 증가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반갑지 아닐까 수가 없다.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증가할수록, 버려지는 일회용 주사기 의료 폐기물 또한 늘어남은 것이 문제이다. 일부 과학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전 세계 인류에게 환경이 주는 경고라고도 말한다.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대목이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일회용 제품과 플라스틱 사용 증가로 지구는 또 다른 몸살을 앓고 있다.

無等鼓

지난 2019년 개봉한 영화 '천문'은 세종 대왕과 과학자 장영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임금과 당대 최고 과학자로 꼽혔던 두 사람의 인연은 소재 자체만으로도 흥미를 끌었다. 영화는 조선의 '시간'과 '하늘'을 보고 읽고자 했던 이들의 열정을 재현했다.

장영실은 원래 동래현 관청에 소속된 노비였다. 평소 그의 재주를 눈여겨보았던 세종은 정5품 벼슬을 내렸고, 장영실은 이에 보답하듯 자격루를 비롯해 많은 천문의기(儀器)를 만든다. 농업용 천하의 근본으로 생각했던 조선에서 날씨와 계절의 정보를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러나 얼마 후 장영실은 임금에 타는 가마인 안여(安輿)가 부서지는 사건에 휘말린다. 이 일로 그는 감옥을 소용없이 했다는 죄명을 쓰고 곤장 80대 형에 처해진다. 모함에 의한 사건이었지만 장영실은 이후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진다.

얼마 전 서울 인사동에서 조선 전기 유물이 무더기로 발굴됐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표기가 반영된 금속활자 1600여 점을 비롯해 소형 화기인 총통 8점 그리

고 천문 시계 '일성정시'의 부품과 물리적 '자격루'의 부속품도 일부 나왔다. 이들 유물은 모두 세종시대의 과학기술을 보여 주는 흔적이다.

옛 한양 중심부에서 유물이 출토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시점을 전후해 민주당 경선에 나서는 아홉 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야권에서도 대권에 뛰어든 인사들의 레이스 경쟁이 본격화됐다. 대권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영화 '천문'에서 세종과 장영실은 밤하늘을 보며 조선의 앞날을 고민한다. 그들의 눈에 비친 '별의 순간'은 백성들이 읽고 쓸 수 있는 시대가

와 조선만의 시간을 볼 수 있는 시계의 발명이었을 것이다. 인사동에서 출토된 유물은 모두 세종 시대와 연관돼 있다. 신분을 초월해 장영실이라는 인재를 등용했던 세종의 혜안과 애민 정신이 낳은 결실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들이 그러는 '별의 순간'은 언제 무엇에 하는 때일까? 현란한 구호에 앞서 '천문'의 뜻처럼 스스로 '하늘에 묻는'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박성진 문화부 부장 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